

그 뒤 1968년에 현재의 위치에 복원하였다. 경내의 건물은 3칸의 용제사(龍堤祠), 6칸의 상서당(尙書堂), 신문(神門), 3칸의 동재(東齋)와 서재, 정문, 2칸의 장서각(藏書閣), 2칸의 전사청(奠祀廳), 8칸의 주소(廚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전택오(田宅五) 정려각(旌閭閣)

조선 후기 울진 출신의 효자인 신묵재(愼默齋) 전택오를 기리는 정려이다. 1891년(고종 28)에 동몽교관조봉대부(童蒙敎官朝奉大夫)로 증직(贈職)하고,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호월리 용저마을 재집골 북서쪽 경작지 옆에 있다. 비각은 단칸 규모의 기와집이다. 바닥은 시멘트로 마감하였고, 전면에 살대를 세워 벽체를 대신했으며, 나머지는 판벽이다. 주변에 선축으로 담장을 둘렀다.

6) 호계정(虎溪亭)

울진읍 용저동 호미봉 서쪽 산자락 아래의 남대천변에 자리 잡은 장예마을에 있는 정자이다. 울진 장씨 직장공파(直長公派) 문중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종중(宗中)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문을 강의하기 위하여 1932년에 건립하였다. 지금의 호계정은 1985년에 중수하였다. 정자는 정면 4칸, 측면 2칸 반 규모로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이은 기와집이다. 평면 구성은 중앙에 2통칸의 마루방을 두었고, 양측으로 2통칸의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이며, 앞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을 설치한 전퇴 5량의 가구 구조를 하고 있다.

7) 호미산(虎尾山)

용저동(龍渚洞)의 앞산으로 능선(菱線)을 경계로 북쪽은 박금동(拍琴洞)이며, 남쪽은 정림1리(井林一里)와 맞닿아 있다. 산의 모양이 ‘범의 꼬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23절 호월3리(湖月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무월동(舞月洞) 뒷산인 고조봉(高助峯)이 있으며, 용저동(龍渚洞)과 접하였다. 남쪽은 호월 3리인 가래골이 있고, 가원동(佳原洞) 뒷산인 삼문봉(三文峯)이 바라보이며, 북쪽은 현종산(顯鍾山)이 명도2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9년에 신축하였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가래골(秋谷)

가을이면 단풍(丹楓)으로 아름답고 골짜기의 생긴 모양이 ‘가래[두 사람이 줄을 당기는 큰삽]와 같다’ 하여 가래골이라 부르며, 추곡(秋谷)이라 하기도 한다.

2) 높은들(高原洞)

1610년경에 남씨(南氏)와 임씨(林氏) 등이 개척(開拓)하였다고 전하며, 앞산에서 기와를 구웠다 하여 와평(瓦坪)이라 하였는데, 1810년에 신안인(新安人) 공표(公票) 주의신(朱毅臣)이 입주(入住)하여 높은 곳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높은들(高原)이라 개칭(改稱)하였다고 전한다.

3) 뫼두들

작은 들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다.

4) 윗마을(上里)

본동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3. 가구 분포

총 38세대가 거주하며 주로 신안 주씨(新案朱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소바위골(沼바위골)

옛날부터 석벽(石壁) 밑에 심소(深沼)가 있었다 하여 소바위라 하고 그 골을 소바위골이라 한다.